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hoes in 2000's

채민정* · 구교정 · 채진미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Min jung Chae · Kyo jong Koo · Jin mee Chae

Textile Clothing Design, Kyunghee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Hu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on shoes of 2000s, understand the chang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e designs of the past and present in order to predict and indicat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omen shoe designs.

The shoes of the millennium not only kept the old fashioned shapes but also showed futuristic shap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hoes in fashion, shoes with various images were created. As far as the materials are concerned, natural materials and artificial materials were both used. The colors were vivid and the futuristic colors. On the other hand, pastel toned colors and romantic colors were used in many different designs and shapes regardless of the seasons.

Straps and hills differed from the oldies. Heavy decorations were added to strap shoes to form a whole new design and hills show geometrical platforms or the avantgarde like heights.

Feminine images overwhelmed the shoe designs of the millennium. To elaborate, Pumps displayed feminine images the most for it showed a high frequency number regardless of the seasons.

Shoes are presented in aesthetical perspective rather than functional or practical perspectives that are based on human nature. Cultural, social, environmental and some part religious factor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volution on the shoes. Especially in the 2000s, future oriented concepts were implemented on shoe designs, resulting a wider range of expressiveness and in the end leading to a more creative shoe designing. Changes in shoe designs could be pointed out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shapes, materials, colors, modeling of decorations or also with the diverting trends.

Key Words : Design Character Female Shoes, shape, upper, toe, fabric, color, decoration

I. 서론

신발은 인류의 기본적 요구에서 시작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쳐 복식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발을 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물여섯 개의 뼈, 열아홉 개의 근육, 백여섯 개의 인대로 된 발은 공학의 결정체요,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했듯이, 신발은 발이라는 예술 작품을 감싸주는 또 하나

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신발은 인류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욕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주변의 물, 풀이나 나무, 넝쿨로 만들어졌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봉제된 가죽 샌들과 가죽 부츠가 제작되었다.

근세와 군대에 이르러서는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의해 개량되어 미적인 면이 부각되어 발달하였고, 경제성과 기능성이 강조되어 현대의 신발모양이 되었다. 특히 구두는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액세서리

* Corresponding author: Minjung Chae
Tel: 02) 584-8182, Fax: 02) 523-2170
E-mail: luvmj1017@hanmail.net

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분화되어 더욱 다양한 구두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두의 형태와 장식은 인간의 예술성향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기후와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신분이나 계급, 명예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과거에도 구두에 대한 관심은 현재만큼이나 많았다.

중세시대 초기에는 무두질하지 않은 가죽을 모카신 형태로 만들어 신다가, 나중에 발목 주위를 베클이나 끈 등으로 죄게 되었다. 14~15세기에는 구두가 매우 길고 뾰족해졌고 15세기말부터 뾰족한 발가락 끝은 둥글게 변했으며 16세기 동안 남성용 구두는 발가락 부분이 매우 넓어져서 오리의 부리 같은 모양을 하게 되었다. 여성용 구두는 남성 것과 비슷했지만 풍성한 옷 아래로 감춰졌기 때문에 덜 화려했다. 17세기에 화려한 자수를 놓은 물이나 그레고리안 시대에는 발목을 우아하게 강조하거나 의복과 조화를 꾀했다.

20세기에는 '디자인 구두'가 인기를 끌게 된다. 1920년대 1930년대에는 로저 비비에르, 살바토레 페레가모 같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면서 초현실적 디자인이나 볼이 날씬한 맵시 있는 구두 등이 나오면서 장인정신에 진보한 기술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면모를 제시했다. 40년대에는 30대에 비하여 신발의 형태가 단순하며 굽이 낮아지고 넓어졌는데 이는 20년대부터 시작된 재즈열풍이 패션에 영향을 준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두의 제갑, 굽, 색채, 장식 등에 새로운 변화와 유행이 생겼으며, 2000년대는 구두의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두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마놀로 블라닉, 지미추 등의 창작구두들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서 미래를 선도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구두의 발달을 시대별로 분석한 연구(구인숙, 1980; 김선화, 1986; 장선애, 1976; 최유화, 1991)와 구두 디자인의 소비자 선호도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김현희, 1986; 여혜림, 1994), 동양신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지희, 1987; 조선희, 1997; 차은진, 박민여, 2005) 등이 있다.

또한 구두의 역사와 한국 근대시대의 구두, 혹은 구두의 굽이나 발의 모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구두의 디자인적 측면을 분석하여 디자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나 유행하는 구두 스타일에 대한 특성 연구나 분석, 구두 선호도에 관한 연구 등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대별 여성 구두디자인의 특성과 변화를 분류, 분석하고 2000년대 여성 구두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여 미래의 여성 구두디자인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여성구두의 디자인 요소

2000년대 여성구두 디자인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 삼성디자인 넷의 선행 자료를 바탕으로 구두의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를 형태, 소재, 색채, 장식의 4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형태

구두의 형태는 구두의 윗부분인 제갑의 형태, 구두의 앞모양인 코모양의 형태, 굽의 형태로 범주를 구분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구두의 유형을 구두와 샌들, 부츠로 분류하였는데, 부츠와 구두의 구분 제갑의 높이에 따라서 구분하였고 샌들은 구두와 발의 오픈된 정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구두는 샌들과는 오픈의 정도로 부츠와는 제갑의 높이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단화의 의미이다. 구두는 형태에 따라서 펌프스, 스트랩, 옥스퍼드, 슬립온으로 구분된다. 펌프스는 1655년에 처음 사용된 용어로 불어의 '장식'이란 뜻이며 처음에는 Pome 또는 Pumpe, Panmpe라고 불렸다. 과거에 학용된 구두로 굽이 낮고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자 20세기부터 주로 높은 굽이 펌프스에 부착되면서 여성용 정장구두로 정착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식은 프랑스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바담 풍파들이 애용했던 형식이 변한 것으로 굽의 높이에 따라 하이힐(High Heel), 미들힐(Middle Heel), 로우힐(Low Heel)로 나누며, 경우에 따라 의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속이나 색체가 다양한 가죽으로 장식한 이브닝 펌프(Evening Pump)와 일반직장인을 위한 미들힐 형식의 비지니스 펌프 혹은 타운 펌프(Town Pump)로 구분하기도 한다.

펌프스는 다양한 코모양에 따라 분류되며 펌프스 형식으로는 그밖에 오픈 펌프(Open Pump), 스트랩 펌프(Strap Pump), 세페레이트 펌프(Separate Pump), 커터(Cutter), 물(Mule), 유팁(U-Tip), 모카신(Moccasin) 등이 있다(임영식, 2001). 스트랩(Stripe)은 구두의 발등에 다양한 넓이의 띠가 하나, 둘 또는 여러개가 둘러진 구두로 띠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옥스퍼드(Oxford)는 일반적으로 끈을 매는 구두 모두를 말하며, 슬립온(Slip-on)은 구두에 끈이나 베를 등 잡그는 장식없이 신는 남녀 구두의 총칭으로 굽이 높지 않으며 제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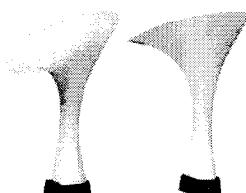
타일은 로퍼와 모카신이 있다.

코 형태는 화형(Last, 구두에서 의상의 바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의 앞모양과 동일하다. 화형을 개발 할 때 이미 모양이 결정되어 조성되는 것으로 코 형태는 구두디자인 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다. 코의 형태는 구두 코의 모양을 기준으로 앞이 뾰족한 모양의 코는 포인트 코(Point toe), 앞이 뾰족하면서도 도톰한 코는 오벌 코(Over toe), 각지고 네모난 코는 스퀘어 코(Square toe), 등근 모양의 코는 라운드 코, 투박한 코는 블런티드 코(Bluntrd toe)로 분류하였다(김현희,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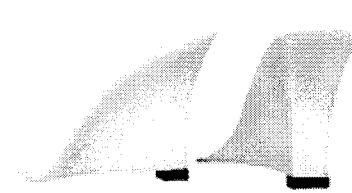
굽의 형태는 굽의 높이와 모양에 따라 분류하였다. 신발은 그 용도에 따라 굽의 형태와 높이가 다른데 그것은 체중에 의한 충격흡수와도 관계되지만 그 신발의 목적에 의해서도 많은 관계가 있다. 또한 남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 안정도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한다. 승마화처럼 그 기능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굽이 있는가 하면, 육상 경기용 신발처럼 뛰는데 장애를 주므로 굽이 없는 신발도 있다. 뒤축이 실제로 필요한

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사람이 걸을 때 입각기(Stand Phase)의 최초는 발 뒷꿈치 딜기이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접지하는 곳이 뒷축이다. 그러므로 굽은 뒷축이 닿지 않게 하여 신발을 오래 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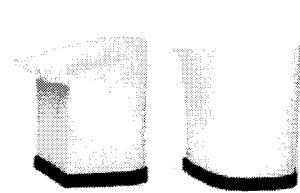
굽높이는 높이를 기준으로 1~2cm정도의 굽은 낮은 굽(Low Heel), 3~5cm 높이의 굽은 중간 굽(Middle Heel), 6cm이상이면 높은 굽(High Heel)으로 분류하였다. 굽형태는 창과 굽이 부착되는 제작방법과 굽 가슴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창을 부착하는 것은 큐반(사진 6)으로, 굽을 부착한 후 창을 부착하는 것은 프렌치(사진 1)와 웨지(사진 2)로 분류하였다. 프렌치와 웨지는 굽 가슴이 일직선인 것은 웨지로 굽 가슴이 곡선인 것은 프렌치로 분류하였다. 웨지 중에서 창과 굽이 함께 된 것은 플랫폼, 웨지 굽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의 종류로는 <사진 1>부터 <사진 11>에서 보듯이 콘티넨탈 굽, 플랫 굽, 스택 굽, 판탈 굽, 앵글 굽, 더치 굽, 스틸레토 굽, 루사이트 굽이 있다.



<사진 1> 프렌치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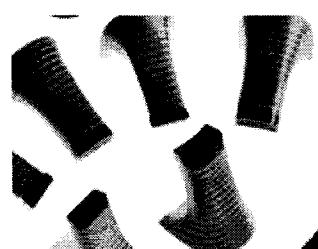
<사진 2> 웨지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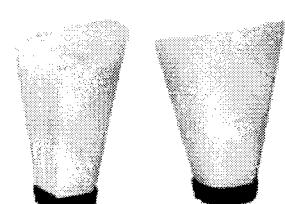
<사진 3> 콘티넨탈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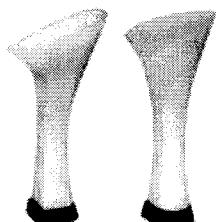
<사진 4> 플랫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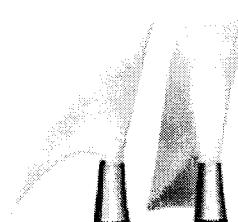
<사진 5> 스택 굽



<사진 6> 큐반 굽



<사진 7> 판타롱 굽



<사진 8> 앵글 굽



<사진 9> 더치 굽



<사진 10> 스틸레토 굽



<사진 11> 루사이트 굽

2. 소재

신발은 그 만든 재료에 따라 종류를 나누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재료가 필요하다. 실제 하나의 재료로만 신발을 만든다는 것은 통고무신이나 나막신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며 재료는 신발의 부분에 따라 다르므로 재료에 따라 종류를 구별할 때는 신발 갑피의 재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크게 가죽화(Leather Shoes), 고무화(Rubber Shoes), 비닐화(Vinyl Shoes), 포화(Canvas Shoes), 목재화(Wood Shoes)로 구분한다.

한지수(1999)에 의하면 가죽화(Leather Shoes)는 동물, 어류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염색, 덧붙이기, 압착 등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수를 놓기도 한다고 한다. 가죽 중에서 악어, 뱀, 도마뱀 등의 파충류 가죽은 특수피로 분류하였다. 가죽표면에 인위적인 변형을 준 것은 가공소재로 분류하였다. 가죽 1장의 중량이 25파운드 이상인 동물의 가죽은 '하이드(Hide)'라고 하고, 25파운드 이하의 작은 동물의 가죽은 '스킨(Skin)'이라고 부르며, 가죽의 품질은 동물의 종류, 연령, 산지 또는 살생시기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죽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가죽, 1년 미만 된 아기염소(山羊)가죽인 키드 스킨(Kid Skin), 말의 엉덩이 부분 가죽인 코도반(Cordovan), 돼지가죽인 피그 스킨(pig Skin), 물소가죽인 베팔로 (Buffalo), 사슴사죽인 디어 스킨(Deer Skin)이 있다. 가공소재는 가공법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되는데 누벅(Nubuck), 스웨이드(Suede), 스프리트(Split)와 같이 가죽의 표면을 기모한 경우와 가죽표면에 코팅처리를 하여 윤기를 부여한 페이턴트(Patent), 컬렉티드(Corected)가죽, 펄(Pearl)가죽 그리고 가죽 표면에 인위적인 구김을 부여한 쉬링크(Shrink)가죽과 인공적인 무늬를 삽입한 엠보싱(Embossing)가죽이 있다.

고무화(Rubber Shoes)는 가게에서 찍어내거나 고무판을 붙여 만든 것으로 통고무신, 고무장화 등이 여기에 속

하며 착용감은 적으나 방수효과가 뛰어나 비신이나 물 속에서 작업하는 작업화, 낚시화 등을 만든다. 비닐화(Vinyl Shoes)는 합성수지 중에서도 연질 수지로 만들며 색상이 다양하고 제작원가가 싼 것이 특징이고, 포화(Canvas Shoes)는 비닐, 나일론 등의 합성수지나 면, 마 등의 동, 식물성 헌으로 된 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각종 운동화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색상과 무늬, 질감이 다양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세탁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벨벳, 데님, 자카드, 비스코스, 개버딘, 공단, 스판덱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목재화(Wood Shoes)는 순전히 나무로 된 것은 찾아보기 힘드나 나막신이나 일본인들의 '게다'가 여기에 속한다.

3. 색채

단일한 색채는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시각 대상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색채가 지닌 이미지와 함께 색채간의 명도, 채도, 색상의 대비 정도에 따라 배색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한다. 또한 색채는 형태에 대한 우리의 지각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형태와 규모, 비례, 재료와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두의 색채는 구두의 소재와 밀접한 관계로 가죽의 염색성과 가공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다. 따라서 색채 구성의 한계성이 의상보다는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희(1986)의 연구와 색채이론과 활용(1998)의 색채 이론에 입각해서 구두의 색채를 구두에 사용된 색상 수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한다. 김현희의 연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구두 색상으로 나타난 블랙,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색을 기본으로 구두의 색상이 한가지면 단일색으로, 배색 아이디어북(2005)의 배색과 패턴이론을 적용하여 구두에 사용된 색상이 명도, 채도, 색상의 대비에 의한 두 가지나 세 가지 단일색이 조합되어 사용된 경우는 배색으로, 레오퍼드나 지브라 패턴 같은 자연 소재

의 문양과 인공적으로 무늬가 삽입되어서 바탕색과 혼합된 경우는 문양색으로 분류하였다.

4. 장식

장식은 원래 실제 대상을 상징적으로 추상화한 것으로서 과거에는 매우 의의 있는 것이었으나 기계가 값비싼 재료로 풍부한 장식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뒤부터 의미 없는 단순한 장식이 되어버렸고, 그 사회적 의의도 상실되었다. 특히 추상미술인 기하학적 추상화 운동은 건축, 제품, 그래픽, 의상 등 디자인 분야의 탈 장식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정시희, 1994).

구두의 장식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구두나 의상에서 사용되는 장식의 의미는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돋기 위하여 디테일 견을 특이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장식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장미연, 1980).

본 연구는 세계 실용장식 1, 2와 김민선(2003)의 자수기법을 응용한 현대패션 구두디자인 연구, 박샛별(2000)의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준식(2000)의 자개를 이용한 구두 디자인연구, 장미연(1980)의 우리나라 여성용 구두의 금속 장식연구의 범주를 기초로 장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된 기본적인 형태의 버클, 끈, 지퍼 등은 기하학적 장식으로 분류하였고, 연속적인 반복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편침, 아일렛, 비즈 등은 유기적인 장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두에서 탈부착 할 수 있는 장식으로 순수히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리본이나 로제트, 코사지 등은 조형적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들은 한가지로 반복되어 쓰이기보다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구두의 특성과 변화를 분류, 분석하기 위한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내용분석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패션 전문사이트인 스타일닷컴, 삼성디자인넷과 같은 계열의 패션 전문잡지 보그, W에서 발췌한 구두자료만을 가지고 의류디자인 전공자 4명이 구두디자인 요소 파악의 객관성을 위해 런던, 뉴욕, 파리, 밀라노 콜렉션에 발표된 구두를 중심으로 일치도를 보이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분석내용은 우선 2000년대를 크게 S/S시

즌과 F/W시즌으로 구분하고 다시 2000~20

03년을 전반기와 2004~2007년을 후반기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전, 후반기의 구두의 디자인 요소별 출현빈도를 검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구두의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사진을 수집한 결과, 2000~2003년까지 212장, 2004~2007년까지 240 총 452 장의 사진이 선별되었는데 구두형태 분석과 이미지 분류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사진 또는 중복되는 사진은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000~2003년까지 178장, 2004~2007년까지 202장으로, 총380장의 사진이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IV. 200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 분석

차은진, 박민여(2005)의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연구의 분류방식을 선행연구자료로 하여 2000년대에 발표된 여성구두를 형태, 소재, 색채, 장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형태에 관해서는 제갑, 코모양, 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형태

1) 제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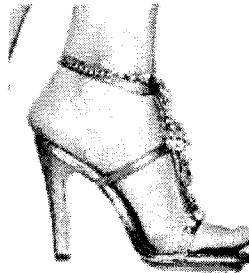
2000년대 나타나는 제갑의 출현 분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1>에 정리하였다. 2000년대 S/S 전반기는 S/S의 일반적인 구두 제갑 형태인 샌들이 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펌프스가 23.8%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제갑 형태였다. 2000년대 후반기 역시 샌들이 5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펌프스가 24.3%로 많이 나타났다. 2000년대 전후반기 S/S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샌들과 펌프스이다. 펌프스는 여성의 가장 보편적인 구두의 제갑 형태로 계절성이 적어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S/S에 전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제갑 형태는 샌들로 계절의 영향으로 발의 노출이 많아 통기성이 우수한 샌들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0년대 전반기에 부츠가 S/S임에도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시즌 파괴적인 경향으로 그 형태들은 주로 무릎 위로 부츠 길이가 올라오는 오버니(Over Knee) 부츠 형태, 발목까지 오는 앵클부츠 형태로 포인트 코의 형태거나 오벌코로 나타났고 굽은 스틸레토는 굽이 없는 것 등 통념적

<표 1> 2000년대 구두제갑의 출현분포

시즌	연대	구분	n(%)						
			펌프스	스트랩	슬립온	옥스포드	샌들	부츠	총 계
S/S	2000~2003	58 (23.8)	36 (15)	4 (2)	9 (2.6)	126 (52)	5 (2.1)	7 (2.5)	244 (100)
	2004~2007	68 (24.3)	30 (10.4)	15 (5.2)	8 (2.9)	142 (50.7)	19 (3.6)	10 (1.9)	200 (100)
계	2000~2007	126 (24.0)	66 (12.6)	19 (3.6)	17 (3.2)	268 (51.1)	19 (3.6)	10 (1.9)	524 (100)
F/W	2000~2003	48 (29)	15 (9)	8 (5.3)	7 (4)	24 (14.9)	62 (37)	3 (1.8)	167 (100)
	2004~2007	68 (31)	19 (8.8)	12 (4.7)	9 (4.2)	32 (14.3)	78 (35.6)	4 (1.4)	221 (100)
계	2000~2007	116 (29.9)	34 (8.8)	20 (5.2)	16 (4.1)	56 (14.4)	140 (36.1)	7 (1.8)	368 (100)



<사진 12> 2007 S/S Sergio Rossi



<사진 13> 2007 S/S ERMANNO SCERVINO

이고 관습적인 부츠 형태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

2000년대 F/W 전반기에는 37%의 부츠와 29%의 펌프스가 가장 많이 나타난 제갑(표 1)형태이고 다음은 14.9% 샌들이다. F/W 후반기에는 부츠가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31% 펌프스가 많이 나타났다. 샌들은 14.3% 그 다음으로 스트랩이 8.8%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후반기 F/W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부츠와 펌프스, 샌들이다.

2000년대 F/W 전반기와 후반기에는 기존의 디자인과는 다른 펌프스 보다 발등이 많이 드러나게 디자인되어 최근에는 다양한 장식의 펌프스(사진 12)가 등장했다. 이것은 2007년도 S/S Sergio Rossi의 펌프스로 앞코가 짧고 발가락이 살짝 보이며 발등이 시원하게 드러난 디자인이다. 2007 S/S ERMANNO SCERVINO 같은 샌들도 시원하고 노출이 많은 것이 높은 빈도수를 보여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이미지의 구두(사진 13)가 유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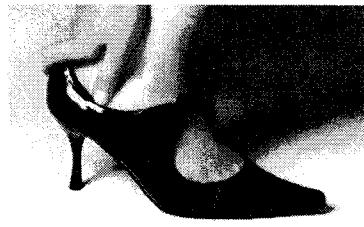
2000년대 구두 코 모양의 출현빈도수 분포 <표 2>를

보면 S/S 전반기에는 2002년 F/W Gucci Collection에 나타난 펫토(오픈토)<사진 17>이 69.2%로 가장 많이 나타난 코 모양이고 그 다음으로 포인트 코 14.3%로 나타났다. 후반기에도 역시 펫토(오픈토)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포인트 코와 라운드 코가 유사한 빈도수로 나타났다. 다음은 26.2%의 스웨어 코(사진 18)이다. S/S라서 그런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샌들과 같은 앞이 둋어져 있는 펫토(오픈토)가 강세였고 포인트 코는 계절과 상관없이 2000년대 구두 코는 전반기에는 포인트 코와 함께 펫토(오픈토), 라운드 코가 많이 나타나는데 포인트 코와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해 주며, 펫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계절과 관계없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성적인 면과 섹시한 면이 섞여있어 포인트 코와 함께 요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양 중에 하나이다. 라운드 코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 준다.

2000년대 들어와서 구두의 코모양은 좀 더 드라마틱하거나 여성성을 매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코모양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라운드 코(사진 15)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등장했다.

<표 2> 2000년대 구두 코 모양의 출현분포

시즌	구분						총 계
		팝토	포인트	라운드	오벌	스퀘어	
S/S	2000~2003	169 (69.2)	35 (14.3)	21 (8.7)	13 (5.3)	6 (2.5)	244 (100)
	2004~2007	23 (8.3)	192 (68.6)	43 (15.5)	15 (5.1)	7 (2.5)	280 (100)
계	2000~2007	192 (36.6)	277 (43.3)	64 (12.2)	28 (5.3)	13 (2.5)	524 (100)
F/W	2000~2003	31 (18.6)	24 (14.4)	16 (9.6)	21 (12.6)	75 (44.9)	167 (100)
	2004~2007	70 (31.5)	53 (24)	49 (22)	28 (12.5)	21 (10)	221 (100)
계	2000~2007	101 (26)	77 (19.8)	65 (16.8)	50 (12.9)	96 (24.8)	3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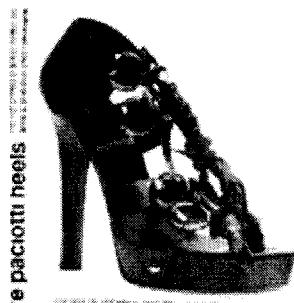
<사진 14> 2006 S/S Ferragamo



<사진 15> 2005 F/W Dior



<사진 16> 2003 F/W choi jung in



<사진 17> 2002 F/W Gucci



<사진 18> 2004 F/W Fendi

2000년대 F/W 전반기의 가장 많이 나타난 구두 코 모양은 39.2%의 포인트 코(사진 14)이고 다음은 라운드 코 15.3% 그리고 팝토(오픈토) 8.3%로 오벌 코가 5.1%로 나타났다. F/W 후반기에도 역시 포인트 코가 31.5%로 강세를 보였고 다음은 24%가 나타난 라운드 코이다. 전후반기에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난 뾰족한 포인트 코는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두 코 모양으로 2000년대 전후반기에도 역시 여성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포인트 코가 가장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각광받고 있는 라운드 코

도 포인트 코 만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후반기를 비교할 때 전반기에 포인트 코 다음으로 포인트 코보다 약간 덜 뾰족하고 도톰한 오벌 코(사진 16)와 둥글고 편안한 라운드 코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 이미지의 구두 코가 유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딱딱한 이미지의 스퀘어 코는 원래 개성적이고 강한 이미지였는데 요즘 들어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스틸레토와 오벌코, 라운드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굽

200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여성 구두의 굽을 높이와 형태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현분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2000년대의 굽높이에 대한 빈도분포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S/S시즌의 전반기를 살펴보면 4-7 cm의 굽이 45.9%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8cm 이상의 굽이 30.3%로 많이 나타났다.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굽높이는 점점 더 높아져 2000년대 S/S 후반기에는 8cm이상의 굽이 59.1%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굽이 없는 형태와 1-3cm의 낮은 굽이 각각 8.2%, 15.9%로, 아주 높은 굽과 낮은 굽의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2000년대 F/W시즌의 전반기와 후반기에는 4-7cm의 굽이 각각 35.9%, 35.7%로 가장 많았으며 8cm 이상의 굽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굽형태의 출현 빈도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3가지의 구두 굽 형태를 분류하여 2000년대를 시즌별·연도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S/S 시즌 전반기의 굽 형태는 큐반굽과 웨지굽,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셀백굽이 각각 17%, 14.6%, 14% 순으로 나타났고 S/S 후반기에도 세가지 형태의 굽이 다른 것보다 높게 나타나 S/S 전후반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는 점을 확인했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2007년 S/S 시즌에는 대부분의 구두형태가 8cm 이상의 투박한 청키(chunky)스타일로 분석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청키 굽이란 역삼각형 꼴의 큐반굽, 쌓아올렸다는 의미의 스택굽, 구두 앞에서부터 뒤까지 삼각형 형태로 높게 올려진 웨지굽, 묵직한 사각형 형태의 셀백굽 등으로 분류된다. 이 시즌에서 더욱 특징적인 것은 메탈리즘의 영향을 받아 구두 전체나 굽자체에 금속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고 플랫폼을 기본 모양으

<표 3> 2000년대 굽높이의 출현분포

시즌	연대	구분	굽 높이				총 계	n(%)
			굽 없음	1~3 cm	4~7 cm	8 cm 이상		
S/S	2000~2003		17 (7.6)	41 (16.8)	112 (45.9)	74 (30.3)	244 (100)	
	2004~2007		23 (8.2)	44 (15.9)	48 (17)	165 (59.1)	280 (100)	
계	2000~2007		40 (7.6)	85 (16.2)	160 (30.5)	239 (45.6)	524 (100)	
F/W	2000~2003		4 (2.4)	48 (28.7)	60 (35.9)	55 (32.9)	167 (100)	
	2004~2007		6 (2.7)	62 (28.0)	79 (35.7)	74 (33.5)	221 (100)	
계	2000~2007		10 (2.6)	110 (28.4)	139 (35.8)	139 (35.8)	388 (100)	

<표 4> 2000년대 굽 형태의 출현분포

시즌	연대	구분	굽 형태												총계	
			굽 없음	앵글	프렌치	스탈레토	웨지	큐반	콘티넨탈	셀백	스택	판타롱	더치	루사이트		
S/S	2000~2003		18 (7.6)	4 (1.6)	7 (0.3)	23 (9.5)	35 (14.6)	42 (17)	29 (11.9)	34 (14)	22 (8.5)	2 (0.8)	8 (3.2)	10 (3.9)	10 (4.5)	244 (100)
	2004~2007		20 (7.4)	5 (1.8)	8 (2.8)	28 (10.2)	43 (15.3)	48 (16.7)	32 (11.6)	36 (13.3)	24 (8.8)	5 (1.3)	9 (3.2)	9 (3.6)	13 (4.4)	280 (100)
계	2000~2007		38 (7.3)	9 (1.7)	15 (2.8)	51 (9.7)	78 (14.9)	90 (17.1)	61 (11.6)	70 (13.3)	46 (8.8)	7 (1.3)	17 (3.2)	19 (3.6)	23 (4.4)	524 (100)
F/W	2000~2003		3 (1.8)	1 (0.6)	46 (27.5)	16 (9.6)	7 (4.2)	19 (11.4)	27 (16.2)	15 (9.0)	8 (4.8)	5 (3.0)	20 (12.0)	0 (0)	0 (0)	167 (100)
	2004~2007		4 (1.8)	0 (0)	62 (28.0)	20 (9.0)	9 (4.0)	23 (10.4)	36 (16.2)	18 (8.1)	12 (5.4)	8 (3.6)	29 (13.1)	0 (0)	0 (0)	221 (100)
계	2000~2007		7 (1.8)	1 (0.3)	108 (27.8)	36 (9.3)	16 (4.1)	42 (10.8)	63 (16.2)	33 (8.5)	20 (5.2)	13 (3.4)	49 (12.6)	0 (0)	0 (0)	3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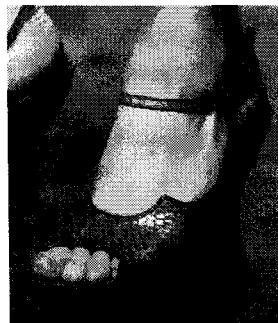
로 하였으며 루이비통의 루사이트힐(사진 11)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굽이 등장하였다. 이렇듯 기본형태에서 변형된 독창적인 굽들도 출현함에 따라 굽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려는 시도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F/W에는 프렌치굽과 콘티넨탈굽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을 기본으로 한 웨지굽은 S/S시즌에 대거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더운 날씨에 적합한, 가볍고 우수한 착용감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스틸레토굽은 여성의 우아하고 가녀린 뒷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계절과 시간을 불문하고 전세계 여성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재

2000년대 F/W 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난 소재 <표 5>는 38.1%의 출현 빈도를 보여준 가죽(사진 19)이었고 다음은 25.8%의 스웨이드/누벅 이였다. 후반기에는 역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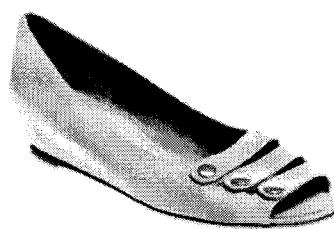
죽이 37.8%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은 역시 28.7%인 스웨이드/누벅이 높은 빈도수로 많이 나타났다. 전후반기 모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가죽은 가장 실용적인 구두소재로 고대부터 사용 되었던 소재다. 편리성과 견고함을 선호하는 현대에서도 가장 적합한 구두 소재라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F/W 전, 후반기 모두에 높은 빈도를 보인 스웨이드와 누벅은 기모가 있는 소재로 시작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어 F/W에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후반기 모두 합성소재가 많이 사용된 것은 남재경, 금기숙(2001)의 연구에서 2000년대 초반기에 스포티/사이버 룩이 증가된 연구결과로 볼 때 스포티/사이버 룩의 의상과 조화를 위해 스포티/사이버 룩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소재가 구두에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20). 2000년대 S/S에도 가장 많이 나타난 소재는 가죽으로 전후반기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반기에는 광택과 코팅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온 페이턴트(사진 21)가 26.8%로 가죽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소재였고, 후반기에도 역시 전반기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특수피의 높은 사용량으로



<사진 19> 2004 F/W Prada



<사진 20> 2004 S/S Manolo Blahnik



<사진 21> 2006 F/W Marc Jacobs

<표 5> 2000년대 구두소재의 출현분포

n(%)

시즌	연대	구분	가죽	스웨이드/ 누벅	페이턴트	특수피	천	합성	기타	총 계
S/S	2000~2003		66 (26.9)	18 (7.3)	65 (26.8)	19 (7.8)	26 (10.6)	11 (4.5)	39 (16.1)	244 (100)
	2004~2007		78 (27.9)	18 (6.2)	78 (27.9)	19 (6.9)	30 (10.8)	15 (5.0)	42 (15.5)	280 (100)
계	2000~2007		144 (27.4)	36 (6.9)	145 (27.7)	38 (7.3)	56 (10.7)	26 (5.0)	81 (15.5)	524 (100)
F/W	2000~2003		61 (36.5)	44 (26.3)	9 (5.4)	17 (10.2)	27 (16.1)	8 (4.8)	1 (0.7)	167 (100)
	2004~2007		84 (38)	64 (29)	9 (4.1)	25 (11.3)	29 (13.1)	9 (4.1)	1 (0.5)	221 (100)
계	2000~2007		145 (37.3)	105 (27.1)	18 (4.6)	42 (10.8)	52 (13.4)	17 (4.4)	2 (0.5)	388 (100)

보아 일부분의 구두소재로 사용되거나 고가의 구두에서 소량 사용되었던 특수피가 다양한 패턴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비닐이나, 캔버스, 합성 소재 등을 활용하여 구두소재의 제한성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2000년대에는 더 많은 소재와 새로 개발된 특수소재들이 구두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S/S에서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3. 색채

2000년대는 구두의 과감한 시도가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색채 모두 독특하고 특이한 구두들이 일반화되었다. 골드/실버 색상의 구두들이 유행하였고, <사진 22, 24>에서 보듯이 비비드한 컬러와 다양한 컬러들을 배합한 문양색과 배색의 구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표 6>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블랙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건 여전했지만, 디자인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 소재면으로 특이하게 혹은 다른 컬러와의 배합으로 색다른 블랙구두가 많이 연출되었다. 전후반기를 불문하고 S/S에

는 블랙 다음으로 브라운컬러가 전반기 14.5%, 후반기 18.2%로 많은 반면에 F/W에는 블랙 다음으로 골드/실버가 전반기 15.5%, 후반기 14.8%로 많았다. 이는 2000년대 F/W시즌에 골드/실버색상이 패션과 더불어 구두에서도 흐름세를 타고, 겨울에 파티문화가 발전되면서 F/W시즌의 샌들과 슬링백 등 독특한 구두가 일반화되며 구두디자인에 맞게 골드/실버 색상도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골드나 실버의 단색으로만이 아닌 골드와 실버의 조화를 이룬 구두도 보편화되었다.

S/S 전반기에는 구두에 문양이 들어간 문양색 또한 브라운과 같은 14.5%를 보이며 많이 나타났다. 후반기 S/S에는 35.4%의 블랙이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사진 23)이고 다음은 브라운이 18.2%, 골드/실버가 13%로 나타났다. 문양색이 많아진 만큼 컬러들을 배색한 구두들도 많아졌다. 전반기 F/W에는 배색구두가 8.8%로 문양색 다음으로 많았고, 후반기 S/S에는 배색구두가 문양색과 똑같이 10.5%였다. 이는 구두가 점점 과감해지면서 문양색, 배색 컬러 등 화려한 구두들이 많아진 것이다.



<사진 22> 2005 S/S Prada



<사진 23> 2007 F/W Manolo Blahnik



<사진 24> 2004 S/S MARC JACOBS

<표 6> 2000년대 구두색채 출현분포

구분 시즌 연대		n(%)										
		블랙	화이트	브라운	레드	블루	그린	퍼플/핑크	골드/실버	배색	문양색	총 계
S/S	2000~ 2003	66 (27.2)	27 (11)	35 (14.5)	12 (5.5)	2 (1.9)	0 (0)	12 (1.9)	20 (12.7)	27 (11)	8 (14.5)	244 (100)
	2004~ 2007	99 (35.4)	24 (8.6)	44 (18.2)	0 (0)	5 (1.5)	0 (0)	8 (2.3)	36 (5.3)	32 (10.5)	32 (10.5)	280 (100)
계	2000~ 2007	165 (31.5)	51 (9.7)	79 (15)	12 (2.3)	7 (1.3)	0 (0)	20 (3.8)	56 (10.7)	59 (11.3)	40 (7.6)	524 (100)
F/W	2000~ 2003	60 38()	11 (6.6)	11 (6.6)	8 (4.6)	0 (0)	0 (0)	14 (8.8)	25 (15.5)	14 (8.8)	17 (11.1)	167 (100)
	2004~ 2007	93 (42.2)	20 (8.6)	22 (10.3)	11 (6.6)	0 (4.6)	0 (0)	15 (7.2)	32 (14.8)	18 (8.2)	10 (5)	221 (100)
계	2000~ 2007	153 (39.4)	31 (8.0)	33 (8.5)	19 (4.9)	0 (0)	0 (0)	29 (7.5)	57 (14.7)	32 (8.2)	27 (7)	388 (100)

4. 장식

<표 7>에 의하면 2000년대 구두 장식은 F/W 전 후반 기에는 모두 무장식과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W의 그다음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끈장식은 각각 15.8%, 14.9%로써 스트랩과 티스트랩 구두의 주요 장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버클과 지퍼는 각각 부츠의 주요 잠금 장식으로 전후반기 모두 부츠와 스트랩 형태의 구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구두의 기능적 장식들은 구두착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구두 형태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 사항은 전후반기 모두 S/S장식이라고 생각했던 비즈와 큐빅 로제 장식등(사진 26)이 F/W의 장식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화려한 구두들이 많이 보여졌다. S/S 전후반기 모두 끈장식과 로제와 리본장식(사진 25) 또한 무장식의 빈도수가 많이 나타났는데 스트랩 구두의 빈도수가 S/S에도 많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진 27>에서 보듯이 화려한 로제 장식과 비즈, 큐빅 장식들이

점점 더 화려하고 럭셔리한 분위기의 구두를 선호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장식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잠금장식이 필요없는 폼프스 구두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기 때문에 분석된다. 2000년대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장식뿐 아니라 더욱 더 아방가르드하고 독특한 장식들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심하고 장식을 배제한 소재, 색채, 형태로 구두 디자인을 변화시킨 순수 조형성이 강조된 디자인 또한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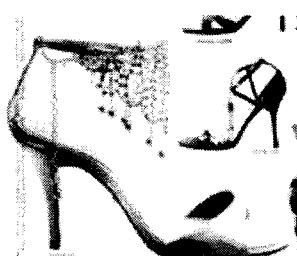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범주화하여 200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구두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앞으로의 구두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는 제갑과 코 모양, 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사진 25> 07 F/w Louis Vuitton



<사진 26> 05 S/S Michaa



<사진 27> 06 F/W Roberto Cavallii

<표 7> 2000년대 구두장식의 출현분포

n(%)

구분 시즌 연대	기하학적 장식			조형적 장식			유기적 장식	기타	무장식	총계
	끈	버클	지퍼	리본/ 클로제	금속	비즈				
S/S	2000~ 2003	96 (38.4)	30 (12.3)	1 (0.6)	53 (22)	7 (3.1)	3 (1.2)	1 (0.6)	4 (1.9)	49 (19.9) (100)
	2004~ 2007	105 (37.6)	37 (13.4)	2 (0.7)	59 (21)	10 (3.6)	4 (1.4)	2 (0.7)	8 (2.8)	53 (18.8) (100)
계	2000~ 2007	201 (38.4)	67 (12.8)	3 (0.6)	112 (21.4)	17 (3.2)	7 (1.3)	3 (0.6)	12 (2.3)	102 (19.5) (100)
F/W	2000~ 2003	26 (15.8)	21 (13.1)	5 (3.2)	20 (12.9)	13 (8.0)	14 (8.9)	5 (3.1)	28 (17.5)	28 (17.5) (100)
	2004~ 2007	34 (14.9)	31 (14.2)	8 (3.7)	27 (12.4)	18 (8.2)	20 (8.6)	7 (3.4)	38 (17.3)	38 (17.3) (100)
계	2000~ 2007	60 (15.7)	52 (13.6)	13 (3.4)	47 (12.3)	31 (8.1)	34 (8.9)	12 (3.1)	66 (17.3)	66 (17.3) (100)

다. 제갑은 F/W의 전반기 후반기 모두 방한의 기능이 있는 부츠와 다양한 디자인의 펌프스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 전반기는 여성구두의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의 샌들과 펌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식과 디자인으로 여성적인 구두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후반기에는 발의 노출이 많고 끈으로 발목을 감싸는 스트랩 구두가 많이 나타나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이미지의 구두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S/S에는 전후반기 모두 계절의 영향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샌들과 화려한 장식의 샌들이 많이 나타났다. 코 형태는 F/W 전후반기에 모두 포인트 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전반기에는 포인트코 다음으로 펫토(오픈토)와 라운드 코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 이미지의 구두 코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역시 여성스러운 포인트코와 펫토(오픈토), 라운드코가 강세를 보였다. F/W 전후반기 모두 굽 높이는 8cm이상 굽이 가장 많았고 굽 형태는 큐반과 프렌치 굽이 많았다. 전후반기 모두 여성 굽 중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굽인 스틸레토 굽의 증가로 8cm이상의 굽 높이가 많았는데 이것은 여성스런 스트랩과 스틸레토 힐의 유행으로 낮은 굽보다는 높은 굽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W, S/S와 전후반기에 모두 높은 빈도수를 보인 큐반 굽은 제작이 간편하고 개발 과정이 비교적 짧아 창의적인 구두 굽 개발에 제한성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소재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선호하는 현대에 맞춰 가장 적합한 소재인 가죽이 F/W, S/S 모두 가장 많았고 F/W 전반기에는 가죽과 기모가 있어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스웨이드와 누벅이 많았으며 후반기에도 동일한 분포도를 보였다. S/S 전반기에는 광택과 코팅 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온 페이턴트가 많았는데 특히 이번 시즌에는 메탈과 퓨처리즘이 유행이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가죽과 페이턴트의 소재가 가장 많이 쓰였다.

셋째, 색채는 F/W 전후반기에 블랙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퓨처리즘과 메탈의 유행으로 골드/실버가 많이 쓰였다. 그리고 계절에 맞게 브라운도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화이트와 베이지도 많이 쓰였다. S/S 전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화이트/베이지와 블랙이 거의 유사한 빈도수로 나타났는데 전반기에는 블랙과 골드/실버, 화이트/베이지가 유사한 분포도로 가장 많이 쓰였고 후반기에는 블랙이 가장 많았고 브라운, 화이트/베이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예전에 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배색도 사용되었다. 2000년대 구두에 쓰인 색상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장식은 끈장식이 S/S 전후반기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라본/로제티, 무장식이 많이 나

타났다. F/W 전후반기에는 무장식과 기타장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끈장식도 비슷한 빈도수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무장식보다 장식이 있는 구두가 많이 나타났고 예전처럼 티안나는 조그마한 장식이 아니라 화려하고 두드러진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구두 제갑부분에만 장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탈피하고 구두 뒷부분이나 굽에도 장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후반기별 S/S, F/W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F/W보다는 S/S가 디자인 요소별 변화가 많아 200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반기 FW에는 부츠와 여성구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펌프스가 많았고 S/S에는 샌들이 많았으며 코 형태는 포인트 코와 펫토(오픈토)가 많았다. 소재는 F/W, S/S 모두 가죽이 가장 많은 가운데 F/W에는 기모가 있어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스웨이드와 누벅이, S/S에는 광택과 코팅 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온 페이턴트가 많이 나타났다. 색채는 F/W에는 블랙이 S/S 블랙과 화이트/베이지가 대표적인 색상이었는데 트렌드를 반영해 골드/실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반기에 기본적인 구두 후반기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구두들이 많았고 F/W에는 극단적으로 뾰족한 포인트 코와 라운드 코의 스트랩과 다양한 길이의 부츠가 많았고 여성굽 중에는 가장 날카롭고 높은 굽인 스틸레토 굽이 많았으며 큐반굽이 고감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나 구두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후반기 때 등장한 루사이트굽 역시 창의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특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두소재의 질감을 부각시켰으며 퓨처리즘의 영향으로 새롭게 개발된 합성소재의 활용이 많았다. 색채는 구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핑크, 노랑, 파랑, 보라색 등의 사용으로 구두색의 다양하고 풍부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구두장식으로 리본이나 로제티, 비즈 등이 많이 쓰여 화려하고 예술적인 구두가 많이 등장했다.

1990년대에 등장했던 안이한 구두디자인과는 달리 2000년대 구두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보였다. 형태, 소재, 색채, 장식 모든 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비단 의상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두에도 오뜨 꾸찌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이제 구두를 단지 신을 수 있는 하나의 신발의 개념에서 벗어나 옷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장식품이 아닌, 그 자체만으로 빛날 수 있는 예술품으로 승화시킨다면 미래의 구두디자인의 장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주제어 : 2000년대 구두디자인, 혁신적, 예술품

참 고 문 헌

천종숙, 최선희. (2000). 여성의 구두 구매 및 착용에 관한 연구.

김영수. (1994). 에스콰이어 구두. (*AURA, Vol.1, NO.1*).

한치수.(1999).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옥련. (1998). 색채 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한중기. (2001). 세계 실용장식 1, 2. 이종출판사.

최유화. (1991).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은진, 박민여. (2005). 1990년대 여성구두 디자인 특성 연구.

김현희. (1986). 여성용 구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민선. (2003). 자수 기법을 응용한 현대패션 구두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순복, 이원자. (2002). 성인 여성의 구두착용과 발 유형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0(3), 3032-3088.

김세주, 김동희, 나진경, 윤준식, 이상현. (1997). 여성의 구두 굽높이에 따른 족저압과 피로도의 분석.

이진희, 김경희. (2003). 여대생의 발 유형과 선호 구두 형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4(3), 235-268.

김영록. (2004). 건강한 여성들의 구두 굽 높이에 따른 균형능력의 차이.

장미연. (1980). 우리나라 여성용 구두의 금속장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준식. (2000). 자개를 이용한 여화 구두 디자인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영식의 구두이야기 <http://www.shoes.pe.kr/>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Style.com [http://www.style.com /](http://www.style.com/)

(2008. 4. 3 접수; 2008. 5. 12 채택)